



기술 표준 뉴스

2008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2008년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이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21일(화) 오후 2시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표준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훈장과 포상 등이 수여되었으며 개인부분에서 영예의 산업훈장은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산업포장은 서병룡 한국파넬트플(주)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단체에 수여되는 국제표준

화부분의 영예는 (주)휴맥스가 대통령표창을, 국가표준화부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개인 31명과 11개 단체에 포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8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그동안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통합·운영하기로 의견한 바 있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KC, Korean Certification)를 발표하는 퍼포먼스가 임채민 지식경제부차관, 남인석 기술표준위원장,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진 세계적으로 세계표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는 2008년도 메시지로 “지속가능한 지능형 생활공간(Intelligent and sustainable Buildings)”이 발표되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빌딩과 건설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CO₂ 배출 재료를 추구하는 새로운 건축시스템표준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기념행사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미세소자 분석기술을 이용한 원자력 현미경 및 정맥인식 기술 등 11개사의 제품이 전시되어 우리 우수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 한·호주 MOU 주요 내용 : 표준전문가의 방문, 교류 및 파견,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 국제/지역기구 활동에서의 협력, 상호관심이 있는 공동회합의 조직 및 참여 등
- * 한·사우디 MOU 주요 내용 : 전문가 파견,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 무역상 기술경쟁 제거 협력, 소비자안전·보호 협력, 측정분야 협력 등

제31차 ISO총회 참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제31차 총회(10.14(화)-16(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남인석 기술표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ISO 표준화 정책을 불문이고, ISO 경영 전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반영하였다.

그간 협력관계가 비약했던 CEN(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유럽표준화 위원회), SNZ(Standards New Zealand, 뉴질랜드 표준원) 등 3개 표준대표기관과 총회 기간중 양자 회동을 함으로써 양자협력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 총회에 앞서 10.13(월)에는 호주, 사우디와 표준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표준협력선의 다변화를 위한 소식을 다졌다.

또한, 세계표준의 난 주제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회기간중 열리는 오픈세션에서는 한양대 홍승호 교수가 '지능형 건물을 지원하는 IT기술'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써, 기술적 측면에서도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 * 지능형 건물 : 정보지식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기능,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

아울러, 남인석 기술표준원장은 오는 11월 IEC 총회시 예정되어 있는 IEC 정책위원회 선거를 위해 우리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IEC/CB(이사회) 및 SMB(표준화 관리이사회)위원의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 IEC/CB(Council Board : 이사회) : 일반적 정책사항 총괄 (임기 3년)
- * IEC/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 표준화관리이사회) :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 총괄 (임기 3년)

또, 기술표준원은 ISO/TMB(기술관리이사회)위원 신가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 * ISO/TMB(기술관리이사회) : ISO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임기 3년)

기술표준원은 금번 제31차 ISO총회와 양자협력의 후속조치를 통하여 개도국 연수지원, 사우디

에 전문가 파견 및 대양주 국가와의 협력망 구축 등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표준협력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기표원, TMB 이사국에 당선

ISO/Council(18개 이사국)이 실시한 TMB 이사국 선거에서 아국은 중국, 이태리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적극적인 표준외교활동을 통하여 TMB 이사국에 당선(임기: '09~'11)되었다.

금번 선거는 중국, 러시아, 스웨덴, 이태리와 의 경쟁에서 1차로 러시아, 스웨덴을 제쳤고, 2차 투표에서도 이태리를 제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 * 선거결과 : (2그룹) 한국, 중국 (3그룹) 남아공, 브라질, 인도
- * ISO/TMB(Technical Management Board)는 표준 분야 기술이사직으로 TC/SC관리에 자국의 의견 반영이 용이, 신속한 신규동향정보입수 등으로 표준화활동에 매우 긴요
- * TMB는 총 12개국으로 미, 영, 독, 프 4개국의 상임 이사국과 8개국의 선출이사국으로 구성

아국은 ISO 이사국('93년 이후 4차례) 및 ISO/COPOLCO의장국('06~'09) 수입에 이어 금번 최초로 ISO/TMB에 진출하게 되어 국제표준분야 위상제고뿐만 아니라, ISO기술위원회(TC/SC) 신설, TC/SC 간사국·의장국 수입 및 경쟁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금번 ISO/TMB이사국 당선된 기술표준원 정기원 연구관은 '98년부터 표준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화장품(TC 217) 및 알루미늄 산업용 재료(TC 226)에서 국제규격 제안하는 등 활발한 국

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금번 아국 최초로 ISO 기술이사국에 당선되었다.

한편 ISO 또는 IEC 정책위원회, TC/SC 의장·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표준전문가 수입규모는 현재 35명으로 2000년 5명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술표준원은 금년 11월부터 미국 표준협회(ANSI)에 10개월간 기술표준원 연구관 2명을 파견 등 선진표준화 기관에의 인력파견 등을 통해 전문가 양성을 추진중이며, 지속적으로 국제표준전문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기술 인증제품 의무구매제도 순회설명회



기술표준원은 10월20일부터 29일까지 혁신형 지방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08.2.29일 정부통합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NEP, NET, GR, GS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의무구매제도,

인증제품 구매실적, 계획 입력방법 설명 및 우수 인증제품에 대한 전시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수도권(서울 필래스호텔), 경남권(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충청권(대전 유성호텔), 호남권(광주 신양파크호텔), 경북권(대구 인터볼고호텔)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0일, 22일, 23일, 28일, 29일, 각각 개최되었다.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신제품 20%의 부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정확한 이해 증진을 통하여 인증신제품에 대한 초기편로를 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매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NEP인증제품 년도별 구매실적

- 295억원('04)→1,823억원('05)→2,009억원('06)→1,984억원('07)
- ('07년 실적은 순수한 NEP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임)

향후 기술표준원은 구매실적 입력을 위한 BuyNP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 중앙부처 회계관리프로그램인 DBrain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구매실적 및 계획을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증제품 관리지원과 개발기술 제품 발굴을 위하여 공공구매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

기술표준원은 2008. 10. 31(금) 농 종강당에서 300여명의 서비스 관련 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유공기업과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는 품질혁신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기술표준원은 2000년도 들어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통·금융·공공서비스 등 11개 분야 55개 업종에서 700여개의 우수기업을 인증하였다.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포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비스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포상으로서, 대통령표창에는 한국후지제독스(주), 국무총리표창에는 한전산업개발과 한국폴리텍대학이 선정되었다.

대통령표창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후지제독스는 노사화합경영, 친환경경영,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고객만족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무기기 서비스 기업으로서, 고객접수 채널을 다양화, 서비스 설명제 등을 통해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화원 선진 서비스품질관리 모델(SEM, Service Management Model)과 e-Support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신노사 문화대상 4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8년 연속 임금협상에서 무교섭으로 타결하는 등 한국정서에 맞는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는 전력산업의 최 일선에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검침 해피탈 제도 운영, 고객의달 운영, 경험고객만나기, 나눔경영실천운동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전력의 정부경영평가 9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기능대학과 기술전문학교를 통합하여 2006년에 출범한 직업훈련교육기관으로서 전국에 권역별로 총 11개 대학과 29개 캠퍼

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 산학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체 현장 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실무능력이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 교육훈련 내상을 주부, 비정규직, 군전역자, 새터민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문식 훈련과정을 강화하는 등 공공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본 행사에서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조창욱 교수의 '서비스경영의 시대-서비스리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금번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후지제록스의 '새로운 서비스시스템을 통한 고객반응도 향상 활동'을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각 산업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8개 기업과 5개의 유공기업과 8명의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등을 수여.

- 우수기업 선정(58) : 선정증서(지식경제부장관)
- 정부포상(13) : 지식경제부장관상 (유공기업 5, 유공자 8)

올 해로 12회째를 맞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은 품질시스템, 전략 및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및 인재육성 등 13개 분야에 대해 8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통해 이루어 진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나아가 고객지향의 품질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참여기업 수 : ('06) 65개 · ('07) 72개 · ('08) 70개

우수기업 선정은 우수한 제품생산 체제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경영성과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 모델화하여 후발기업들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금년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분야 12개, 기계·금속·자동차분야 18개, 화학분야 11개, 공공기업분야 12개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 중소기업 26개, 공공기업 12개로 나타났다.

※ 그간 선정기업수('97~'08) : 665개(대기업 236, 공공기업 49, 중소기업 380)

2008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기술표준원은 품질혁신, 고객감동 실현 등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경영성과를 낸 58개 기업을 「2008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 발표하고, 선정기업과 유공자(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시상식은 10월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1997년부터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을 선정한 이래, 끊임없는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한국 OSG(주)(12회), 한미반도체(주)(11회), 삼성전자(주)부선사업부(10회), 한진KPS(주)(10회), 대림통상(주)(10회) 등의 6개 기업은 10회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남인석 기술표준원장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뛰어넘어 품질경영 기준에 맞는 사회적 실적을 통해서 고객이 진심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은 물론 고객 지향적인 품질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이들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품질경쟁력 평가지표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5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 산업대상 시상식

'08.10.23(목), 16: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인석 기술표준원장, 김정식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서병륜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회장 등 파렛트·컨테이너업계 및 주요 불류설비 수요·공급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파렛트·컨테이너표준화 이행 및 품질향상과 유닛로드시스템화에 기여한 유공기업체 등을 표창하여 국내 파렛트·컨테이너 산업의 표준화 이행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파렛트컨테이너 행사가 한·중·일 컨퍼런스와 함께 개최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내 불류설비 분야의 주요행사의 하나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국내 파렛트산업 표준품

질 향상 및 파렛트유닛로드시스템화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폴드라인, 동원산업(주),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 등 3개 업체와 포장법인정명 이명훈 대표가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진성산업(주), (주)구광프라텍 및 부안유통재영농조합법인 등 4개 기업체가 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8개 업체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 표창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인석 기술표준원장은 축사와 유공자 표창을 통해 파렛트·컨테이너 산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파렛트 및 컨테이너가 제조업 유통에 필수적인 설비로서 국가간 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유망 산업임을 강조하고,

최근 유가, 원자재가 상승 및 달러 강세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파렛트·컨테이너업체가 기술개발 및 상생협력을 통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해 나가도록 당부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① 파렛트·컨테이너 수요·공급업계의 연계 활성화 ② 증장기 친환경 파렛트·컨테이너 기술개발 지원 ③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④ 파렛트·컨테이너 국제 표준화 적극 참여를 통해 선진국형 파렛트·컨테이너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행사와 더불어 한국컨테이너협회와 APSE(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한·중·일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컨퍼런스가 함께 열려 각국의 불류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등을 통해 한·중·일 3국이 물류분야에서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휴대기기용 리튬배터리 안전관리품목 지정



휴대폰, 노트북 등에 각종 폭발사고로 소비자에게 불안을 주었던 휴대기기용 리튬배터리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제정(안)을 2008년 10월 16일 입안 예고하였다.

최근 리튬배터리 내장형 휴대기기의 기능과 편리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휴대기기도 종류가 다양화되고 판매도 급증하여 관련안전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여름철에 내비게이션 등 휴대기기를 차량 안에 방치하거나 짐질방 등 전자기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많고, 저가 수입산 배터리 셀(Cell, 단전지)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에 취약한 제품이 생산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그간 전지제조업체, 관련연구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럽 및 일본의 안전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사용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혹한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안전기준은 국제기준(IEC 62133)보다 더욱 강화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리튬배터리의 대한 기술적 자신감을 세계에 알리고, 정부의 그린에너지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리튬배터리의 안전기준 마련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에는 고온방치 시험, 단락 시험, 열노출 시험, 압착 시험 등 6개의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고온방치 시험은 여름철에 90℃에서 7시간 동안 전지를 방치하였을 때 전지가 발화 또는 폭발되지 않아야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표시사항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시험항목	시험 조건	
	IEC 62133	안전기준(안)
고온방치 시험	70℃에서 7시간 저장	90℃에서 7시간 저장
단락 시험	충전조건 20℃, 4.2V	충전조건 45℃, 4.25V
열노출 시험	충전조건 20℃, 4.2V	충전조건 45℃, 4.25V
압착 시험	충전조건 20℃, 4.2V	충전조건 45℃, 4.25V

강화하여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입안 예고된 안전기준(안)은 WTO/TBT 규정 에 따라 60인간의 WTO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1월 고시될 예정이며, IT산업의 개발동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되어 질 것이다.

제2차 "CJK-SITE" 국제표준 협력체 총회



한·중·일(CJK-China, Japan, Korea) 정보·전자산업분야의 기업, 연구소, 대학, 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제표준화협력체(CJK-SITE)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 IT·전자기술 등 3국의 관련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국제표준화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국제표준화 공동내용 등의 역할을 담당할 CJK-SITE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전망이다.

※CJK-SITE 개요

(Standards Cooperation on IT and Electronics)

- RFID, 홈네트워크 등 ISO 및 IEC의 정보·전자 분야에서 3국 민간단체, 기업등이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해 결성한 민간중심의 표준화 협력체

*제1차 CJK-SITE 총회 개최 ('07.11.20~21, 중국 북경)

*제2차 CJK-SITE 총회 개최

- 일 시 : 2008. 10. 16(목)~17(금)

- 장 소 : 한국 제주

- 참가자 : 한국 17명, 일본 17명, 중국 16명 등 총 50명

*한국 : 한국표준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 LG전자, 경북대, 산기대 등

*일본 : 전자정보산업협회, 소니, 도시바, 마츠시타, 후지츠, 미츠비시 등

*중국 : 전자표준화연구소, HED, MI 등

특히,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3국 대표기관인 기술표준원(KATS), 일본경제산업성(METI), 중국표준원(SAC)이 Adviser로 참석, 민간 중심의 CJK-SITE 활동을 측면 지원, 병실상부한 민·관 합동 표준협력체로의 위상 및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가전, 반도체등의 정보전자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나, 국제표준화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중·일표준협력체를 통해 핵심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이슈별 3국 협력이 가능하여 5개국 참가가 필수적인 국제표준 제안(NWIP) 확대 기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RFID Ad hoc" 및 "유해물질표시 Ad hoc" 설립을 주도하고, 모바일 RFID 분야의 국제표준(안) 10종에 대한 한·중·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기술표준원은 CJK-SITE가 관련 산업계에 대한 국제표준화 저변을 확대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국제표준 제안 증가 등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동 CJK-SITE의 협력분야 및, 우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표준 2008.11



2008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